

# 출입증·네임택 없어도 OK... '네이버 출입증' 회사까지 확대

무인 편의점 등 넘어 활용처 확대  
제2사옥 적용... 베타테스트 진행  
외부인 출입시 QR로 간단 통과  
분실 위험없고 폐기물 감축 효과

지금까지 무인 편의점, 무인 꽃집 등에서 사용돼 오던 '네이버 출입증' 서비스가 네이버 제2사옥인 '1784' 건물에 처음 적용된다.

네이버는 9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784 건물에 베타 서비스 형태로 네이버 출입증을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 등 계열사들이 위치한 판교 테크윈 빌딩에도 16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금까지 네이버 출입증은 이마트24 등 무인편의점에 들어갈 때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도록, 무인 꽃집 등 무인 시스템이 적용된 곳에 주로 적용해왔다. 또 무인 횡집, 무인 고깃집, 무인 강의실에서도 이용돼 왔다"며 "네이버 출입증을 무인시스템에 적용할 뿐 아니라 '사옥을 출입할 때 적



네이버 사옥에서 네이버 출입증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

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1784 베타 서비스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 출입증 서비스는 아직 전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베타 테스트 기간 중 파트너와 교류가 많은 몇몇 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달 간 출입증 서비스 사용성을 점검한 후 2월부터 전체 임직원들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전

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1784에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파트너들이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파트너스룸'을 이용하기 위해 1층 안내데스크에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다"며 "네이버 출입증으로 QR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네이버 앱만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직원은 자신의 방문자를 미리 등록하면 되는 데, A씨가 몇 월 몇 일에 방문한다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방문자는 네이버 앱을 설치 후 앱 상에서 '나'를 눌러보면 바로 출입증 서비스가 보이는데, 출입증을 누르면 바로 QR 코드가 나타난다. 이를 처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네이버 출입증은 현재 이마트24, CU, GS25 등 전국 무인 편의점, 무인 정육점, 무인 밀키트, 무인 반려동물 용품점 등 2200여곳이 넘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보안이 중요한 사옥에서 사람과의 대면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테스트가 중요하다.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네이버 출입증 서비스는 실물 출입증 분실과 위변조에 대한 걱정 없이 네이버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보안적인 면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것이 특징"

이라고 밝혔다. 또 방문객들의 출입 내역도 관리할 수 있고 방문객 대상으로 일괄 안내메시지도 발송할 수 있는 등 관리적인 면에서도 편리하다.

네이버 출입증은 이번 베타테스트를 거치며 무인 매장 관리용으로 주로 사용되던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용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네이버측은 "네이버 출입증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손목에 띠를 두른다거나 네임택을 하는 등 방법을 적용해왔다"며 "네이버 출입증은 출입증을 분실할 위험도 없어진다. 기업에서 사원증이나 출입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들은 행사에서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또 네이버 출입증 사용으로 종이나 플라스틱 소재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일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HJ중공업, 경비함 등 6500억대 '수주 대박'

작년 말부터 잇단 수주 쾌거  
해군 사업 수행 경쟁력 입증

HJ중공업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독도함 개량사업 등 총 6500억원대 군함을 수주하면서 '수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HJ중공업 조선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처음 1600억원대 규모의 해군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 발주에 이어, 해경 3000톤급 경비함 1척(851억원)을 추가 수주했다.

이로써 HJ중공업은 고속정부터 전투함과 상륙함, 대형 수송함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대 함정을 건조하는 실적을 쌓아 군함의 설계와 건조부터 성능 개량과 각종 군수지원 시설까지 해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산전문업체임을 입증했다.



미 해군 JLOTS 훈련 모습.

JLOTS 체계는 파괴된 항만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 항만시설을 구비해 선박의 장비와 물자를 육상의 전투부대로 공급하는 군수지원 과정을 뜻한다. 태풍이나 화재와 같은 각종 재난으로 고

립된 섬 주민들에게 구호물자와 장비,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구조 활동에도 투입할 수 있다.

특히 HJ중공업이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JLOTS는 미군 작전에

투입되는 ▲적·하역 계류주교 ▲부유식 부교 ▲부교에연정 ▲수송지원정 ▲해안유류지원정 ▲해안양륙지원장비 등의 전문장비를 모두 포함한다.

또 3000톤급 경비함은 길이 120m, 최고 24노트(45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첨단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이 탑재되며, 고장력강을 이용한 최신 선체설계가 적용된다. 40일간 물자보급 없이 항해가 가능하며, 원양해역까지 수색·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경비함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과 방산 증가의 자부심을 토대로 전투부대의 대동맥이자 생명선인 JLOTS와 해경 경비함 건조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군·경의 작전수행 능력과 해상방위력 증강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74년 국내 합정부방위산업체 1호 지정 기업인 HJ중공업은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수요기관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반도체 공정 AI 도입" SK하이닉스 수율 개선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으로 반도체 생산성을 높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부터 양산 라인에 가우스랩스가 개발한 가상 계측 AI 솔루션 '판옵테스 VM'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옵테스 VM은 제조 공정에서 센서 데이터를 취합해 결과를 예측한다. 제조 공정에서 모든 일을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판옵테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판옵테스 VM을 개발한 가우스랩스에 투자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박막 증착 공정에 먼저 이 솔루션을 도입했다. 종전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탓에 전수 조사가 어려웠지만, 가상 계측을 통해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박막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 수율 향상까지 달성했다. 앞으로 가우스랩스와 다른 공정으로 확대 진행을 검토 중이다.

가우스랩스의 김영한 대표는 "가우스랩스는 최고의 AI 기술을 통해 제조 현장에 의미 있는 효과와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난제들을 공략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제조/기술 김영식 부사장은 "반도체 개발 및 생산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술 우위를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며, 이번 Panoptes VM 도입은 시작일 뿐"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 롯데케미칼 국내 최초 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인체·환경 미치는 결과 측정  
ABS 소재, 폴리머 제품 등 평가

롯데케미칼이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자사 생산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한다.

제품 위해성평가는 특정 화학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평가체계다. 제품에 함유된 물질 및 함량, 독성, 인체·대기·물·토양 등 노출량, 잔류성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화학 제품에 노출되는 작업자, 최종 고객의 위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품의 외부 영향도를 확인해 기존 대비 안전한 대체 물질·소재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최근 ESG 경영 강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고객사를 중심으로 제품·소재 차원의 위해성 등 정보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따라 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제품에 포함된 개별 '물질'의 독성 위주로 고려하므로, 여러 물질이 혼합된 '제품'이 인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을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내외장용 소재로 적용되는 ABS 소재(VE-0870)를 비롯한 폴리머(혼합물질) 제품 3개 그레이드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 측에 의하면 국내 기업 중 '제품' 자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롯데케미칼이 처음이다.

롯데케미칼의 제품 위해성평가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한 K-C HESA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화평법 등록 시스템의 등록자료와 연계하여 제품의 사업장·작업자·소비자별 노출도를 측정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각 단일 물질의 위해성을 도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해당 자료를 종합해 제품 자체의 위

해성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유해성 정보 검증과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켄솔브)와의 협업을 진행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홈페이지 제품사이트에 게시 및 국내외 고객사 등에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제품 위해성 평가를 통해 고객 대상으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품 관리정책을 확립할 것"이라며 "향후 평가 대상 제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해 고객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소재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